

광주 남구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기고

이혜영
광주 남구청
경제재정국장



2025년 소상공인들에게 경기 불황은 피부 깊숙이 파고드는 냉혹한 현실이 됐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불황, 비상계엄과 제주항공기 여객기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 선포 등으로 각종 행사가 멈추고 소비 심리까지 위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구에서도 연말 '광주의 종' 타종 행사, 2025년 해맞이 행사 등 지자체 행사와 민간 기업들의 연말연초 각종 모임 및 행사 취소가 잇따르면서 내수가 한층 위축돼 소상공인들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러한 소비심리 위축은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 향상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그 반대면 더욱 소비를 줄이려 한다. 문제는 앞으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소비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한다. 그만큼 우리 지역 경제에서 중요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전체 산업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의 상황에

서 그냥 소비가 활성화 될 리 없다. 소비가 촉진되도록 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남구에서는 1000억원 발행 규모의 2025년 1월 광주상생카드 10% 특별 할인을 지원하여 소비심리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처하고 있다.

지난 22일 김병내 남구청장은 제주항공기 여객기 참사로 무안공항 폐쇄 등에 따른 예약 취소가 잇따라 고사 위기에 빠진 지역 여행업체 관계자 20여명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여행업 등록면허세 6개월 정수유예,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희망대출사업 조기 시행, 관내 초중고교 행사 시 지역 업체를 이용토록 각 학교에 협조 요청 하는 등 여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무안공항 폐쇄기간 동안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개통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에는 매주 토요일 군분로(무등시장 앞) 야시장을 5회 개최하여 5만여명의 인파를 유치함으로써 군분로 상점가 30~50%, 무등시장 점포는 200~300%의 매출이 폭등하는 등 풍성한 야시장을 선보였다.

올해도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남구의 대표 야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 이내 면적에 소

상공인 운영 점포 30개 이상 밀집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남구 골목형상점가는 6개월 만에 기존 2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가맹 등록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취급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와 광주시 등이 공모하는 상점가 활성화사업 등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광주 남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백운스트리트푸드존 상점가는 지난해 8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4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상점가 공동마케팅과 토요일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남구는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군분로 토요일야시장 등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의 경기 침체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큰 위기이다. 하지만 골목 생태계가 탄실한 골목상권은 기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우리 골목상권은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머물고 싶은 골목상권은 주어 지는 게 아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다시한번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응원한다.

기고

김정동 수필가·시인



뱀의 단상(斷想)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 뱀의 해이다. 푸른 뱀의 해라고 한다. 청사(靑蛇)는 유리거울처럼 맑아서 창자속이 흰히 보이고 초피(鰍皮)나무 밑에서 이슬만 먹고 살며 백사(白蛇)와 함께 귀하고 영험한 동물로 여긴다고 한다. 우리가 뱀을 이야기 하면 우선 징그럽고 더러운 존재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고, 고마움의 대상이기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잡초 무성한 추억의 묵정밭을 한이랑 쟁기질 하고자 한다.

뱀은 여러 종류가 있다. 구렁이부터 뱀중의 왕이라는 검은능사, 집근처에 살면서 쥐나 개구리를 잡아먹는 검화사(밀뱀), 논이나 들판에 사는 무자치(물뱀), 향토예비군복을 입은 꽃뱀(화사), 물렸 다 하면 독이 있어 위험스런 살모사나 독사류, 작은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도마뱀 등이다. 그 중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놈은 화사인데 이놈은 어린 시절 어른들이 모내기나 공동으로 들일을 가셨을 때 점심을 맞추어 동생들 젖을 먹이러 가거나 못밭을 먹으러 가는 길목에 코브라처럼 곧추서서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비켜주지 않으면 무서움을 참으며 날카로운 혀로 돌돌이 세레를 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보면 금세 파리 떼가 우글우글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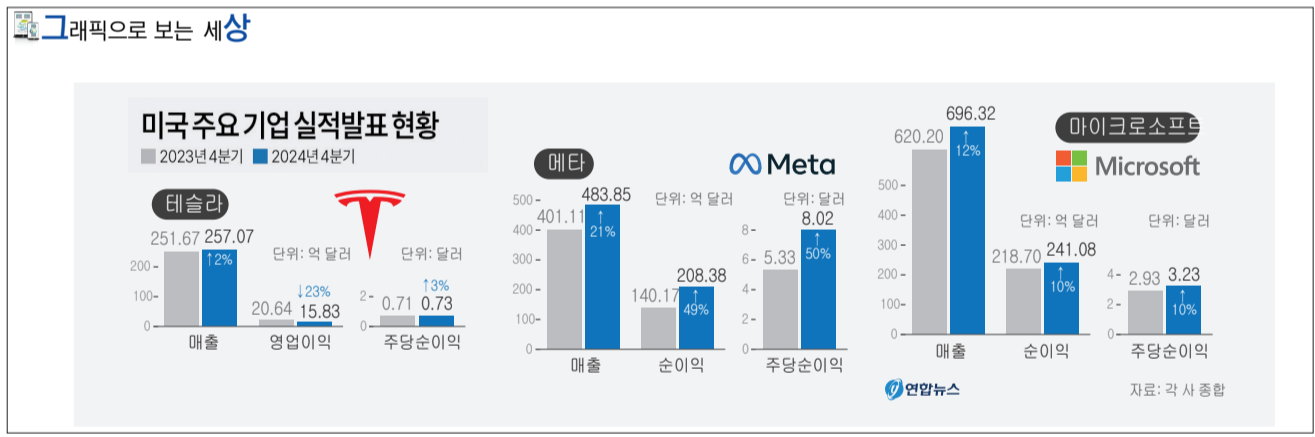
어느 날 산골 마을에 땅꾼이 와서 장거주하게 되었다. 땅꾼이란 뱀을 생업으로 잡는 사람이다. 그렇게 무섭고 징그럽던 뱀이 이제 짝잡한 돈벌이가 되었다. 재미를 붙인 나는 곧 꼬마 땅꾼으로 입학원서를 냈다. 뱀을 잡는 도구는 쌀을 담은 자루(당시는 벼로 만들었음)와 끝을 기역자로 만든 1m정도의 쇠막대가 전부였다. 나의 사업은 일취월장 번창하여 어떤 날은 땅꾼 아저씨보다 더 많이 잡는 날도 있었다. 창피한 얘기지만 나는 뱀을 잡아 중학교에 입학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뱀에게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오늘날 뱀은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과학자들은 뱀을 자연 재해나 재앙을 감지하는 대상의 로봇으로도 이용하고 있는데 '일본국제 구출시스템 연구기구(IRS)의 능동 스크프카메라가 그 실례라

하겠다. 또는 뱀의 독을 연구하여 약물 개발에 활용하는 등,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체분자 구성을 가진 뱀 독소의 단백질은 보물은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콘스네이크 같은 뱀은 온순하고 독이 없는 70여종의 애완용으로 사육되고 있고 그중 알비노볼 파이탄의 경우 몇백만원 대에 이른다 한다.

브라질에는 퀘이마다 그란데(Queimada Grande)라고 불리는 금지된 섬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 무인도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섬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 섬의 주인은 독사뱀이라고 한다. 그것도 보통 독사뱀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독사가 무려 4000마리 이상 우글대고 있기 때문이란다. 이 많은 독사뱀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독사뱀은 골든 랜스헤드 바이퍼(Golden lancehead viper)라는 독사뱀이다. 이 뱀들에게 한번 물리면 뱀의 맹독이 빠르게 온몸에 퍼져 위출혈, 신장 부전(腎臟不全), 뇌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물렸다 하면 바로 사망이라고 한다. 이 섬은 1985년 브라질 당국에 의해 출입 제한구역이 됐고, 몇몇 의학적 연구와 관련된 조사만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물려 섬에 들어갔다가 시체가 되는 일도 있지만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비싼 가격 때문이라고 한다. 이 독사뱀은 퀘이마다 그란데 섬에만 존재하며 황금색을 띠기 때문에 값이 마리당 무려 3800만원이나 될 만큼 엄청나게 비싸다고 한다. 세 마리만 잡으면 역대 부자가 되므로 목숨을 걸고 섬에 들어가 뱀을 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뱀은 우리 인류에게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지구상에서 수백만 년을 살아왔다. 뱀과의 지속 가능한 공존은 생태계의 건강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가 뱀을 이해하고 존중할수록, 우리 모두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것이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에는 나라가 안정되고, 힘들고 지친 서민들에게 희망이 가득한 해가 됐으면 한다.



진일보 @jnibo |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진일보 | E-Mail: jebob@jnibo.com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